

방통위, '24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

- 심사일정 및 절차, 고시 주요내용 등 설명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김홍일, 이하 '방통위')는 3월 8일(금) 오후 2시부터 코리어나호텔(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)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설명회에서 방통위는 '24년도 심사일정 및 절차, 심사 준비사항, 고시 주요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.

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, 참석자는 설명회 종료 시 소정의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.

방통위는 “핀테크(FinTech), 마이데이터(MyData) 등 다양한 서비스의 활성화로 온라인 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*하고 있다”면서 “본인확인기관이 국민의 중요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신청기관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”고 밝혔다. 끝.

* 본인확인 건수 ('16년) 11억 건 → ('23년) 26억 건

담당 부서	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	책임자	과 장	이정아 (02-2110-1520)
	디지털이용자기반과	담당자	사무관	이상목 (02-2110-1521)